

신경외과 영역에서의 미세혈관 문합술

나형균 · 이경진 · 조경근 · 박해관 · 조정기 · 최창락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신경센터

목 적 : 신경외과 영역에서의 미세혈관문합술은 혈역학적 뇌허혈 환자, 경부결찰이 불가능한 동맥류환자 및 뇌동맥을 쌓고 있는 뇌기저부 종양환자등에서 시행될 수 있다. 본 대학 뇌신경센터의 뇌혈관클리닉에서 최근 3년간 18례의 미세혈관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세혈관문합술의 유용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최근 3년간 본 센터에서 미세혈관문합술을 시행한 18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중 17례는 경동맥이나 내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에 의한 혈역학적 뇌허혈 환자였으며, 1례는 외상성 동맥류환자였다.

수술방법은 14례는 측두동맥-중대뇌동맥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며, 3례는 요골동맥이나 대복제정맥을 이용한 long bypass graft를 시행하였고, 나머지 1례는 대복제 정맥을 이용한 short bypass graft를 시행하였다.

결 과 : 임상적으로 수술전 신경학적 결손증세를 보였던 14례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. 수술후 뇌혈관촬영상 18례 중 16례에서 문합부를 통한 순환을 볼 수 있었으며, 2례에서 문합부 폐쇄소견을 보였다. 문합부가 폐쇄된 2례는 수술합병증으로 수술창감염이 있었던 예와 수술전 막혔던 혈관이 수술 후 recanalization된 예였다.

결 론 : 혈역학적 뇌허혈 환자, 경부결찰이 불가능한 동맥류 및 뇌동맥을 쌓고 있는 뇌기저부 종양환자등에서 수술전 제반검사를 통하여 미세혈관 문합술에 의한 여러종류의 우회로 수술이 신경외과 영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.